

‘지지부진’ 기업도시 - 경제 寒波 소용돌이에 휘말리나

- 영암·해남및무주뒷걸음질 갈등,‘현대단독의태안은상대적으로 순항’-



지난 2005년 7월 전남 해남·영암과 무안,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 등 전국 6개 지역이 기업도시시범 지구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3곳은 3년 5개월 여가 흐른 현재까지 개발 계획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최근 경제 위기 여파로 사업 추진을 중단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나머지 3곳은 기공식을 갖고 토지 보상과 초기 기반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나 갈길이 아찔하다. 6개 기업도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영암·해남 - 초송지구엔 발목 ’

‘관광레저형’으로 전남 영암·해남군 일대에 건설 예정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일명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는 개발 계획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6개 기업도시 가운데 가장 뒤쳐져 있다. 전남도는 “2007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상호·구성·초송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개발부지인 간척지 양도 양수에 농림부가 반대해 1년이 넘도록 승인이

지난 2007년 10월 기공한 태안 기업도시. 기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순항하고 있다.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는 전남도가 지난 2003년부터 핵심 전략 사업으로 추진해온 곳. 전남도는 전체 개발 예정 면적(3,000여 만평) 가운데 1차로 3개 지구 51.57km²에 대한 개발 계획을 신청했다. 문제가 되는 곳은 초송지구. 기업도시 시범 지구 지정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곳으로, 이곳 간척지 양도 양수 문제를 둘러싸고 전남도와 농림부

가 갈등을 빚고있다. 농림부는 지난해2월 ‘타당성이있을경우문제없음’에서5월에는 ‘타당성 용역 후 검토로, 8월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가’ 타당성 있음으로 나온 뒤에는 ‘용역이 잘못됐으니, 재용역 후 재검토 도입장을바꾸며시간을끌고있다는것이전남도의설명이다.

전남도는 특히 농림부가 당초 간척지를 농업용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분양해야한다는논리를펴는데대해‘개발계획이 추진된 이후 수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었고, 지난 정부 때까지 전혀문제삼지않았던것을뒤늦게들고나온배경이 궁금하다’고 하소연한다. 전남도의 한고위관계자는“예산을달라는것도아닌데, 투자 기업(자본)을 유치해 요청한 승인절차에 이렇게 긴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을 이해할수없다”며청와대와정지권등에대승적결단과지원을촉구했다.

삼호지구 사업자는 금호·대림·한국판광공사 등이 참여하는 서남해안레저주식회사. 허브가든, 헬스케어파크, 솔라에너지단지, 컬처테마단지 등문화·건강 휴양 타운으로 개발 예정이다. 보성·송촌건설 등으로 이뤄진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가 맡은 구성지구에는 해양스포츠파크, 세계음식문화촌, 바이오에너지파크등이조성된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농협·하나은행 등이 참여하는 초송지구는 18홀 골프장 8개와 빌라·승마·요트장등을 갖춘 차별화된골프클러스터로개발될예정이다.

무안 - 한중단지올 하반기 착공 계획

‘산업교역형’으로전남무안군무안읍과청계·현경·망운면 일대 32.95km²에 건설될 무안기업도시도 투자 기업과 자본금 유치가당초계획보다 늦어졌다. 크게한중국제산업단지(17.7km²)와 국내 단지(나머지)로 나뉘 개발되는데, 최근한중국제산업단지 쪽은 2008년 1월 국토해양부 중앙도

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되는 등 빠른 진척을보이며정상궤도에올라서고있다.

한중단지는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들이 함께투자한다. 총사업비1조69억여원가운데지산집단·광하집단등중국의2개자본이 51%를 투자하며, 국내10개 건설·금융 업체와 무안군 등이 나머지를 부담한다. 2008년7월개발계획승인을신청, 현재기업도시위원회의결을앞두고있어조만간승인절차가마무리된다. 무안군은“개발계획이승인되는대로보상과실시설계등에들어가올하반기중착공할계획”이라고밝혔다.

한중단지에는 차이나시티(50만평)와 국제대학단지(13만평), 중경시·산동성전용 산업단지(16만평), 도매유통단지(13만평)등이들어선다. 국내단지는개발계획승인을신청한 상태였으나, 주요참여기업이었던프라임그룹이검찰수사등으로중도하차, 다른참여기업을물색하고있다.

무주 - 사업 중단으로 ‘갈등’

무주군안성면공정·덕산·금평리 일원 76만m²에지정된관광레저형무주기업도시는경제위기여파로사업이중단된상태. 사업자인대한전선이 2008년9월정부로부터개발계획을승인받은뒤지나해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5월로 예정했던 토지 보상 계획 공고를 미루고 있다. 대

한전선은“미국발금융위기여파로금융기관이프로젝트파이낸싱(PF)중지되고부동산 시장도 위축돼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중단 사유를 밝혔다. 이 사업을 위해 대한전선과무주군이공동설립한무주기업도시(주) 송경 대표는“기업도시의 주사업이 주택분양인데전국미분양주택만 25만가구에이르는경제위기속에서 사업의앞길이보이지않는다”며,“여러진로를놓고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민들은 이 사업으로안성면 일대 2,000가구의 재산권이몰이면서 축사, 비닐하우스등의증·축을못하고사과등고소득작목을심지 못하고있으며, 조속한사업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무주기업도시 추진과 함께 덕유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안성면 전체(9,728만m²)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편입부지및인근 3,01만m²가 개발제한구역으로묶였다. 군민들은 지난해 1월 13일 서울 여의도와광화문등에서상징집회를가진데이어 12월 5일부터 17일까지 대한전선 본사 앞과 무주리조트입구에서항의집회를열었다.

군 사회단체협의회는“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제한법을근거로한사업으로, 사업승인을해준정부가나서사업 재개를촉구하거나 사업자를 대체하는 등 해결책을 세

‘지식 기반형’ 중주기업도시는 지난해 연말까지 임목 벌채와가설도로개설작업이진행되었다.



우라 요구하고있다.

태안 - '순항'

충남 태안군 태안읍과 남면, 천수만 일원 14.6km에 조성될 '관광 레저형' 태안기업 도시는 유일하게 단일 기업이 개발을 맡은 곳. 지난 2007년 10월 6개 기업도시가운데 가장먼저기공식을갔고, 한창기반공사가 진행되고있어상대적으로순항하고있는편이다. 현대건설이오는 202년까지 9조 156억 원을 투자해 국제적인 관광 레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와 준설인가, 토지매수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다. 2007년 8월 충남도로부터 부남호 준설을 인가받아 이미 15만㎡를 실시했고, 앞으로 4년간 1,530만㎡의 퇴적토를 준설, 수질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배후 도시와의 연계 발전을 위한 태안읍 기업도시 간 연장 도로도 곧 착공할 예정이다. 태안군은 사업 진척에 따라 기업도시 연결 도로 3개 노선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태안군은 "현대건설의 지난해 말 공정목표가 총공정의 3%였던 만큼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 수준"이라며, "토지 보상 및 조사, 설계 등이 마무리되고 골프장, 비치 하우스의 설계도 마무리돼 올 해부터 개발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 - 지난해 11월 착공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신평리와 호저면 무장리 일대에 조성될 '지식 기반형' 원주기업도시는 지난해 11월 24일 기업도시가운데 3번째로 착공식을 가졌다. 531만 1,000㎡ 부지에 5,602억 원을 투자해 2012년까지 부지와 기반 조성 공사를 마치고, 2020년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첨단 의료기기 및 제약, 병원, 바이오, R&D(연구개발) 등 최첨단 무공해 저탄소 기업들을 유치, 인구 2만 5,000명이 거주하는 메디폴리스로 건설될 예정이다. 산업 및 연구 개발

용지에는 의료기기 및 제약회사, 의료·사이언스파크가 들어서며 수도권과 영남을 연결하는 중간물류기지도 구축된다. 전문아울렛매장과 할인점 등 상업유통단지 조성되고 9홀 규모의 골프장과 자유행사림고 등 4개의 초·중·고교가 들어선다.

원주기업도시는 중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인접한 광역 교통망과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2013년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 강남권까지 40분이면 연결이 가능하다. 현재 건설 중인 덕소 원주 간 중앙선 복선전철이 2012년 완공되면 1시간 이내 철도 물류수송까지 가능해지는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연세대 원주 캠퍼스를 비롯해 상지대와 한라대 등 관내 대학의 의료분야학과들을 통합하는 특화 대학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원주기업도시는 약 4조 5,000억 원의 건설 투자 유발 효과와 2만 5,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 - 90% 가까이 보상 진행

충주시주덕·이류·가금면 일대 70만㎡에 조성되는 충주기업도시도 '지식 기반형'이다. 지난해 7월 1일 기공식을 갖고 현재 보상작업이 86% 가량 진행된 상태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임목 벌채와 가설 도로 개설 작업을 벌인 데 이어,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올 봄부터 본격적인 기반 시설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시는 "현재로서 기반 조성공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상태"라며, "공사가 끝난 후 제대로 된 기업도시의 모습을



을 갖출 수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현
조선일보 전국 부기자
shkim@chosun.com

이 글은 필자 외에 기업도시를 추진 중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일보 전국 부속 여러 기자들(김창곤(무주), 유태종(충주), 이혁재(원주), 우정식(태안))가 취재한 내용을 일부 인용해 작성되었다.

도시 안내

멋진 다리 위의 세상

백이호 지음/주니어 랜덤 펌 24쪽



이 책은 <원더랜드 WONDERLAND> 시리즈 제 10권 '교량공학 편'이다. 이 시리즈는 아동용 공학 전집으로 각 권마다 주제와 관련된 박사 한 명과 나공학과 봉두루라는 어린이가 나와 각 공학 세상을 여행하듯 이 견문을 쌓게 된다. 이 책에서는 다리의 물리적 의미 및 기능, 역사를 비롯해 다리의 문화, 환경, 미적 가치까지 교량공학에 관련된 모든 것을 두루 살펴본다. 어린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과 그림이 함께 실려 있다.

2009 트렌드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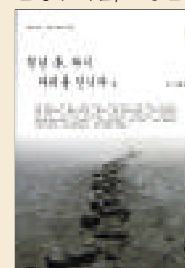
김민주 지음/미래의창 펌 33쪽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경제, 사회, 문화, 인물, 과학 등 5가지 프레임으로 나누고 약 240여 개의 최신 트렌드 키워드를 소개한다. 변화하는 생활에 따라 등장한 많은 신조어,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최근 화제가 된 용어들, 현대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전문 용어들을 한 권에 정리하였다. 본문은 슈퍼클래스, 티커머스, 잇걸, 그루밍족, 오피스 와이프, 텔레매틱스 등 주위에서 많이 들어본 키워드, 신문이나 뉴스에서 얼핏 들은 것 같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키워드들이 뒤섞여 있다.

천년 후, 다시 다리를 건너다 II

손광섭 지음/진양문화 펌 23쪽



돌다리 전문가로 알려진 손광섭 청주 건설박물관장이 5년 만에 다시 옛 다리 이야기를 소재로 「천년 후, 다시 다리를 건너다 II」를 펴냈다. 5년 전 「천년 후, 다시 다리를 건너다」를 발간한 데 이어 이번 책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옛 다리 중에서도 전편에 소개하지 못했던 규모가 작고 오지의 산과 들에 방치된 채 사라져 가는 25개의 다리들을 조명한 후속편이다. 이 책에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떠받치며 풍상을 견뎌 온 돌다리에 얹힌 아름다운 이야기와 선조들의 교량 건축술, 옛 다리를 통해 본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특히, 각 다리에 얹힌 전설과 건설 배경 등을 다 양한 사진 자료와 함께 재미있게 곁들여 썼다.